생약시범전시포를 찾아서

8백여종 희귀약초 전시

우리나라에 없는 8백여 종의 희귀 약초들이 UR의 두터운 껍질을 뚫고 여린 잎을 틔우고 있다.

경북 경산시 대평동 165번지 소재, 2천2백평 규모의 「생약시범전시포」가 바로 그곳.

개량월비, 금전국, 달무초, 만타라, 소해향, 대천생, 미녀복, 지부자, 홀화, 소수우, 서초, 허란국, 훨향, 천향자, 산원자 등 이름 조차 생소한 중국의 희귀 약초들이 8백여종 전시된 이 시범포는 배성한 경북지부장(한국생약협회) 이 개인 사비를 들여 지난3월 설치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8천여 종의 생약재가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생약재의 수는 겨우 3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는 배 지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초들 중에는, 여러가지를 섞어야 약이 되는 국내 약초와는 달리 단일 품목으로도 약이 되는 품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

『천향자나 개량월비, 허란국 등 그 자체만으로 약이 되는 약초들을 개발 보급하게 되면 식품으로,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로가 한정되 있지 않아 농가 소득 차원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일 품목으로 약이 되는 외국 생약재들 중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 UR 극복의 길이라고 배지부장은 믿고 있다. 이는 그가 전시포를 설치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다.

◇ 배성한 경북지부장

"단일품목으로 약되는 식물많다"

농가소득차원서 기대해 볼만

시범포 설치를 위해 배지부장은 지난 87년부터 현지 중국인들로부터 수소문하고 기상대를 통해서 세계적인 연평균 기온과 토질을 알아 내는가 하면, 중국의 생약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외국의 생약재가 우리 풍토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작업과 자료수집을 꾸준히 해왔다.

혼자 힘으로 시범전시포를 설치하기까지는 경제적인 부담도 많았지만, 외국에서 약초 종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 저기 수소문 해서 비밀리에 종묘종자를 들여 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배지부장은 전한다.

때로는 돈 벌이 되는 것 한 두가지만 들여와서 재배하면 속편할텐데 하는 생각도 안한건 아니지만, 먼 훗날 우리나라에 없는 희귀 약초가 국내에 정착되어 보유됨으로서 우리 생약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부심이 그간 버팀목이 돼 주었다고.

지난해 8월부터 틈틈이 들여온 희귀종묘들을 지난 4월 드디어 파종을 해 이제 막 발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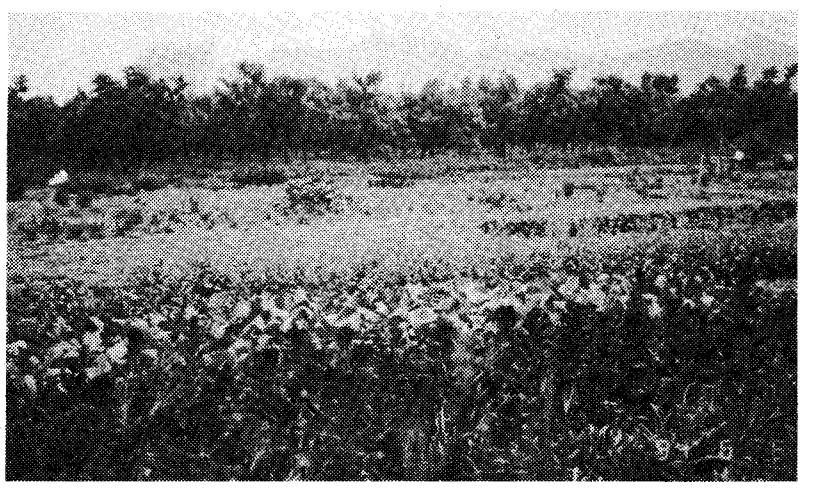
배지부장은 요즘 하루해를 거의 농장에서 보내다시피 한다. 약초마다 거름주는 시기와 거름 종류들이 각기 달라 작업과정을 일일이 감독해야 하기 때문.

파랗게 싹을 틔운 약초들 사이로 감복을 세워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일 역시 배지부장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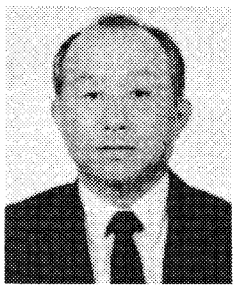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틈나는 대로 「본초도감」등 중국의 생약전문서적들을 들여다보며 우리 생약개발에도 열성을 보이는 배지부장은 『현재 임대료만 해도 만만치 않다』며 정부에서 『지역적으로 여유있는 땅 4~5만평 정도를 배려해 준다면 거기에 세계적인 약초 전시포를 설치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현재 시범전시포에서 자라고 있는 희귀 약초들의 성장과정을 상세히 관찰, 구체적인 재배방법을 책으로 엮어 교육자료로 보급하고 싶은 소망도 함께 갖고 있다고.

〈熙〉



기 고



생약연구위원장
동덕여대약대교수
도 상 학

藥은 毒이고 毒은 藥될 수 있어

약초에 대한 연구는 人知未開時代부터 시작되어 다른 학문보다 먼저 이룩되었다.

최초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물을 찾았고, 점차 병마에서 생명을 구할수 있는 약효식물을 연구하는데 까지 왔다.

이렇게 시작하여 현재 약용식물, 식용식물, 농업식물, 산림식물, 원예식물, 섬유식물, 공업식물 등등 여러 분야로 발전되었다. 이 모두 순수식물학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용방면에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흰눈에 덮여 있는 숭고하고, 순결한 고산식물이나, 길가에서 먼지에 쌓여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사지 못하는 잡초에 이르기까지 현재는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4천여종의 식물이 분포되고 있으며 이중 약초는 약 1천여종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식물은 아직 몇 종이며, 어떤 성분이 유독한 것인지 명확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서양의 한 과학자는 육식민족인 서양사람들에게 국민은 오로지 牛馬처럼 모든 잡풀을 먹으라고 주장하여 야생초의 식량가치를 역설한 적이 있다.

필자도 사실 이 관점에 있어 동감이며 더욱 한걸음 나아가 우리 동양사람들은 채식민족이니, 유독식물을 제외한 모든 식물을 섭취하라고 제창한다.

실로 산채의 맛과 산에서 나는 과일의 향기는 도지 사람들이 천만금을 들인 무엇과도 비할 바가 아니고, 春野夏山에 가족들과 모여서 산채를 찾는 심정은 시골사람만이 갖는 정취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야에 自生하는 식물을 채집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은 채식민족인 만큼 유독식물로 인한 中毒事件도 역시 많다.

모처럼 우리는 다량의 야생식용식물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식물의 형태상 특징을 파악치 못하여 먹어도 관계없는 것은 비켜놓고 오히려 유독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먹고 중독되는 실례가 많은 것은 유감이다.

식물에 함유된 단백질등 일반성분만을 함유할 때는 섬유부분을 제거하면 어떠한 식물도 관계가 없지만, 식물중에는 일반성분 외에도 어느 특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특수조직 내에만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다.

유독성분으로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 화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실로 천차만별이다.

의학적으로 호흡흥奮주를 마비시켜 호흡정지를 일으켜 죽게하는 것, 특히 심장에 작용하여 그 박동을 정지시키는 심장독 기타 경련독 등 대단히 많다.

이와같이 유독성분이 충분히 연구되어 화학적, 의학적 작용 명백히 규명된 것은 중독될 때에도 합리적 조치방법을 강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으나, 유독성분의 본질이 불명한 때에는 참으로 곤란하다.

여기서 화학적 해독제의 한 예를 들면 양귀비, 애기똥풀, 부자등 알카로이드에 중독되었을 때는 탄닌을 가하면 물에 용해하지 않는 탄닌물이 생겨 위장에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가 되므로 알카로이드 중독시에는 탄닌산수(예로 보리차)로 위를 세척함이 제일 효과적이고, 응급처치로는 차의 농축액을 복용한다.

약용탄을 다량 투여하는 것도 좋으나 이때 사하제를 쓰는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피마자유는 오히려 독의 흡수를 조장시키는 관계로 절대 금물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속히 토하게 하는것이 제일 좋아 입속에 손을 넣어 구토시키는 것이 좋고 미온수를 많이 내복시킴이 좋다.

식용식물과 유독식물의 일반 구별은 아직 철저하게 규명되어 있지않아 전문가가 아니면 형태상 특징을 파악할 수 없으나, 유독식물은 대체로 그모양, 색들에 불쾌감을 주는 것이 많다.

또 어떤 식물은 유독 또는 맹독일지라도 사용법에 따라서는 묵술을 구하는 좋은 약이 되는 것도 있다.

용법 여하에 따라서는 毒이 변하여 藥이 되고, 藥이 변하여 毒이 된다.

다시 말하면 藥은 毒이고, 또 毒은 藥이 될 수 있다.

有毒植物이 이같이 무서운 해독을 주는 것은 그 중 함유되어 있는 유독성분으로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 화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실로 천차만별이다.

의학적으로 호흡흥奮주를 마비시켜 호흡정지를 일으켜 죽게하는 것, 특히 심장에 작용하여 그 박동을 정지시키는 심장독 기타 경련독 등 대단히 많다.

이와같이 유독성분이 충분히 연구되어 화학적, 의학적 작용 명백히 규명된 것은 중독될 때에도 합리적 조치방법을 강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으나, 유독성분의 본질이 불명한 때에는 참으로 곤란하다.

여기서 화학적 해독제의 한 예를 들면 양귀비, 애기똥풀, 부자등 알카로이드에

토막정보

한약의 보혈제로 대표적인 당귀, 강활은 우리나라의 한랭한 산지나 서늘한 곳에서 주로 자라는 숙근초로 각지에서 약초로 재배되고 있다. 당귀, 강활의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건조시키려면, 1달~2달 정도 자연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조법이라 할 수 있다. 건조기에 넣어 건조할 경우 과열로 인한 성분소멸과 색깔변질의 우려가 있다. 이때 성분과 색깔을 비교적 덜 소멸시키기 위해선 우선, 건조기에 60~70℃ 정도의 열을 가해 10시간 정도 유지시킨 후 적당히 쪄지면 45℃ 정도로 완전히 열을 낮춘 후 건조장 내에서 4~5일 정도 건조하면 된다. 그러나 자연건조법이 역시 최선의 건조법인 것만은 사실이다.

〈정형모 전남지부장〉